



미 증시, 중국 시위,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하락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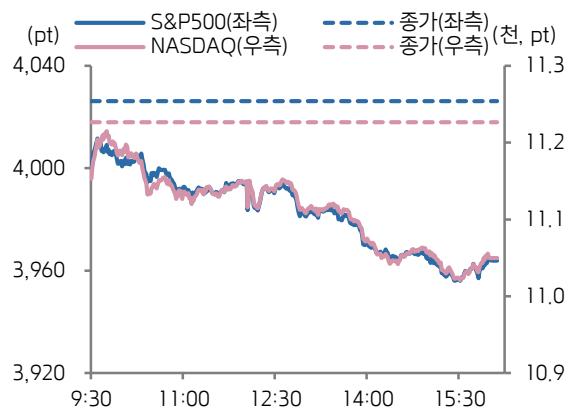
28 일(월) 미국 증시는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반발시위,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등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면서 하락 마감 (다우 -1.45%, S&P500 -1.54%, 나스닥 -1.58%)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시장이 미국의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연준이 더 공격적일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억제에 성공하려면 2024년까지 금리를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매파적 스탠스를 유지. 존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어느 시점에 명목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실질금리가 상승하고, 그것은 경제 효과 측면에서 정책을 점점 더 긴축시킬 것이다”, “2024년이 명목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점일 것으로 본다”고 언급.

지난 24 일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반정부 시위 발생. 중국 정부는 10월에 발표한 코로나 봉쇄 완화 조치를 번복하며 시위대의 더 큰 반발 초래. 이후 시위 촉발지인 우루무치에서 코로나 19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후퇴 및 불확실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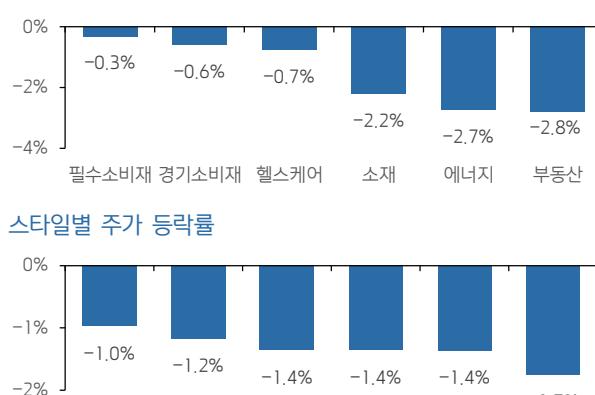
업종별로 필수소비재(-0.3%), 경기소비재(-0.6%), 헬스케어(-0.7%) 업종 강세, 부동산(-2.8%), 에너지(-2.7%), 소재(-2.2%) 업종은 약세. 애플(-2.63%)은 중국 최대 협력 생산업체인 폭스콘에서의 인력 이탈 및 시위사태로 아이폰 생산이 최대 600 만 대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로 하락. 디즈니(-3.22%)는 최신 개봉작 개봉 이후 1860 만 달러 수익을 올리며 선전했으나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하락.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여파로 위험선호심리 후퇴한 영향으로 엔비디아(-2.72%), 마이크론(-4.55%), AMD(-2.6%), AMAT(-2.22%) 약세 지속.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963.94	-1.54%	USD/KRW	1,340.75	+1.23%
NASDAQ	11,049.50	-1.58%	달러 지수	106.66	+0.66%
다우	33,849.46	-1.45%	EUR/USD	1.03	-0.01%
VIX	22.21	+8.34%	USD/CNH	7.25	+0.02%
러셀 2000	1,830.96	-2.05%	USD/JPY	138.92	-0.02%
필라. 반도체	2,678.78	-2.63%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145.40	-2.06%	국고채 3년	3.665	+2.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595	-1.8bp
Eurostoxx50	3,935.51	-0.68%	미국 국채 2년	4.438	-1.5bp
MSCI 전세계 지수	625.15	-0.13%	미국 국채 10년	3.681	+0.4bp
MSCI DM 지수	2,703.67	-0.09%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41.01	-0.48%	WTI	76.52	+0.31%
MSCI 한국 ETF	56.84	-1.78%	금	1755.7	-0.7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78%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45%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3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40.7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나스닥 등 미국 증시 급락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출현 가능성

주요 체크 사항

2. 애플(-2.6%)의 주가 급락이 국내 관련 IT 밸류체인주에 미치는 영향
3. 장중 중국 백지 시위 관련 뉴스 플로우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일주일전에 비해 베팅 강도가 다소 약해지긴 했으나 시장은 12 월 FOMC 에서 50 bp 인상을 유력하게 보고 있는 상황. 더 나아가, 일부 시장참여자들은 공급난 해소, 인플레이션 하락, 경제 침체 임박(S&P500 에서도 '23년 미국 -0.1% 성장 전망) 등을 고려하면 최종금리 레벨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이며 내년 말 연준이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현시점부터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28 일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이 같은 전망과 기대감을 차단했으며, 그 과정에서 증시 조정이 초래됐던 것으로 판단. 대표 매파 강성론자인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시장이 연준의 긴축 발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최종금리는 5%대 이상이 될 것이며 2024년까지도 해당 레벨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주장. 뉴욕 연은 총재도 긴축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2024년에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매파 색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

금주 남은 기간에도 파월의장(30 일 현지시간) 포함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서 이들과 같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사실. 그럼에도 최근 증시 역시 낙관론이 열어지고 있으며 연준 역시 금융안정성을 고려하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연준발 증시 조정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상정하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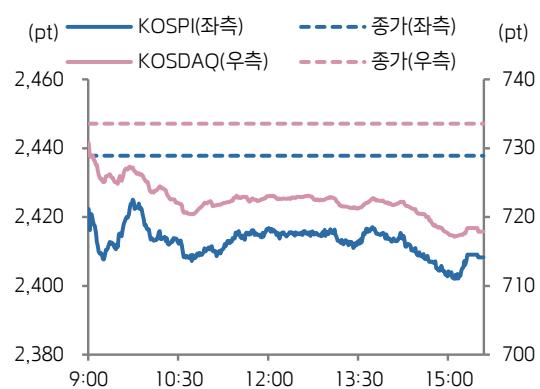
한편, 중국 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이었던 제로 코로나와 관련해, 베이징, 상해 등 주요도시에서 백지시위(제로코로나 반대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 중. 코로나 확산 속 과도한 방역에 대한 불만 등은 폭스콘 정저우 공장의 인력 탈출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애플 아이폰 14 의 생산량이 600 만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백지시위가 장기화 및 증폭될 시에는 "중국발 공급난 악화 → 전세계 인플레이션 재상승 → 연준 긴축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 자체는 존재. 하지만 이미 중국 정부의 기조는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방역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금번 시위 이후 중국 관영매체에서도 완화 강도를 한층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감안 시 중국 시위의 증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중국 백지 시위 발 불확실성에 따른 위안화 약세 및 공급난 우려, 원/달러 환율 급등 영향 등으로 하락 마감(코스피 -1.2%, 코스닥 -2.1%). 금일에는 유력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 애플(-2.6%) 등 미국 증시 조정 사태가 외국인 매도세를 자극하면서 제한적인 약세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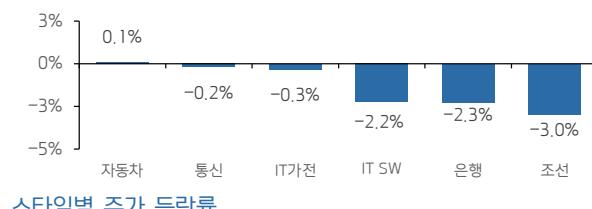
중국 시위 악재 역시 애플 관련 IT 밸류체인주 및 소비관련주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었으며 금일 장중에도 시장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미 전일에 상당부분 반영해왔던 만큼 백지 시위 사태 발 잠재적인 가격 조정의 충격은 전일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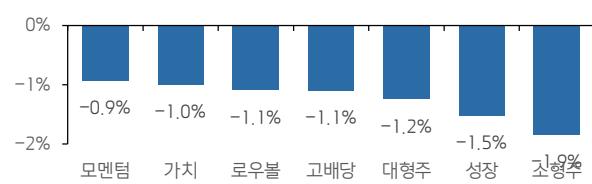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자리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